



민중, '전월세전환율'...
임대차시장 보완책 마련 착수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8월 6일 목요일 (음 6월 17일)

제259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여행체험 1번지' 전북, 코로나도 빚겨갔다

문체부 특별여행주간 관광객 455만명 다녀가 전년 동기비 2.8%↑... 청정전북 이미지 굳혀 전국적 감소세 속 강원·전북·제주만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관광 수요 감소세 속에 전북도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청정지역의 힘을 입고 '여행체험 1번지'의 명성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 특별여행주간 관광수요 분석 결과 특별여행주간인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전북을 찾은 지역방문자는 455만명으로 전년 동기과 비교했을 때 2.8%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지역방문자는 14.9%가 감소했다

경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는 등 맛과 멋의 고장 전북의 매력과 안전을 뒷받침할 다양한 관광수요를 발굴해 진행하고 있다.
전북은 여름 성수기 관광객 증가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10월 말부터 2주간(10.31~11.15)을 가을여행주간으로 정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유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도 한 달 여행하기",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하여 가고싶은 그곳 우리의 전북이야기 여행하기 공모전" 등 전북도민의 차별화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북여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원하게 내리는 비' 비가 내린 5일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교정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방문자가 증가한 지역은 전북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가까운 강원(6.8%)과 제주(1.4%) 뿐이다.
특히 전북은 전월(6월 3일~21일) 방문자 43만명보다 7월에 2만명이 증가하는 등 '안전하게 여행하는 청정전북'의 이미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을 찾는 방문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도와 각 시·군, 그리고 도민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함께 전북도민의 차별화된 관광수요 충족 노력이 시너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전북투어패스 1+1 이벤트'를 비롯해 전북을 찾는 관광객 가족단위 최대 10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가족여행 지원사업', 단체관광객 외국인 전용버스 등 지원 기준(20명→8명) 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정전북 휴가철 여행후기 공모전(7월 9일~9월 30일), 청정전북 비

'한지패션쇼' 한 편의 영화처럼 감상해요

전주시·전주패션협회, 8일 온라인 개최... 유튜브 등 공개

전주시가 한지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해 해마다 열고 있는 한지패션대전을 올해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열기로 했다.
전주시와 (사)전주패션협회(회장 최경은)는 오는 8일 전주영희종합촬영소에서 언택트 온라인 방식으로 '2020 전주한지패션대전'을 열고, 향후 미디어를 통해 행사 전반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전주한지패션대전은 '한지'와 '패션'을 접목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전주한지와 한지패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지패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로 열리는 이번 2020 전주한지패션대전'은 행사진행을 위한 최소인원만을 배치해 진행한 뒤, 촬영영상을 미디어와 SNS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는 한지패션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유도하고 수요 창출을 돕기 위해 △전주한지패션 디자인경진대회 △디지털 초청 한지패션 갈라쇼 △전주한지 국제패션쇼 △세계민속의상 한지패션쇼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주한지패션 디자인경진대회는 패션을 전공하고 있는 예비디자이너들이 한지를 활용해 만든 의상 40벌의 디자인 경연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장,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정훈중 디자이너(대한패션디자이너협회 회장)와 함께 한지패션의 실용성, 고기능성, 에코월빙 패션소재에 대해 홍보하는 한지패션 갈라쇼와 패션 관련 전공 대학교수와 디자이너들이 함께하는 전주한지 국제패션쇼도 이어진다.
그리고 여태명 서예가와 홍찬석 화가가 참여해 만든 한지티셔츠와 손수건 등 한지패션 기념품 판매행사도 진행되며, 판매 수익은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세계민속의상 한지패션쇼의 경우 한지로 스페인 이집트 멕시코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의상 15점

을 제작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패션쇼를 통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이외에도 (사)전주패션협회는 오는 20일 2020 전주한지패션대전의 일환으로 한지패션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산학관련 심포지엄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전주패션협회는 이날 촬영된 '전주한지패션대전'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사)전주패션협회 홈페이지(afa.kr)와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등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오재수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언택트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게 됐다"면서 "한지패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한지패션 메카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IMSIL-GUN
임실군

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